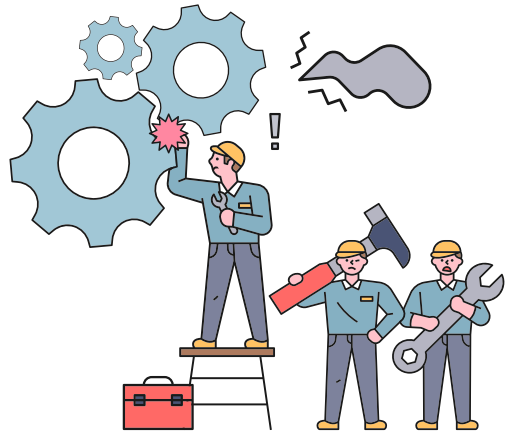


간편한소식 타임즈

「간편한 소식 타임즈」는 3월 한 달간 일간지에 나온 사회 이슈를 편하고 보기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기계에 끼여 참변...10곳중 9곳이 '방호장치' 없었다

최근 4년 동안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적으로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현장 132곳 가운데 96.9%(128곳)에서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잘못 설치해 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너지는 지방대...200명 이상 정원미달 18곳

올해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가운데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이 30곳이 넘고, 이 가운데 18개 대학은 미달 규모가 200명 이상이면서 정원의 10% 이상 신입생을 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대학의 미달 인원(6812명)은 작년(491명)의 1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 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AZ 접종 간격 8주서 10주로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접종 주기가 길수록 효과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1,2차 접종 간격을 당초 8주에서 10주로 2주 늘리기로 했다. 이런 결정에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2차 접종용으로 비축한 백신을 앞당겨 투입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1차 접종에 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백신 맞으면 몸살 온다던데, 왜 그런가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몸속으로 백신의 항원 성분이 들어와 면역세포를 자극한다. 자극받은 면역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면역반응이 일어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 시 이를 중화하게 된다.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사이토카인 등 각종 물질이 분비되는 걸 면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발열과 몸살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항체생성 과정에서 오는 현상으로 방역당국은 접종 후 충분한 휴식을 권장하며, 접종 이후 통증을 견디기 힘들다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코로나 검사 면봉에 차량용 고착제 쓴 의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용 면봉에 차량용 고착제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다. 현행 규정상 코로나 검사용 면봉은 의료용 기기로 분류돼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식약처 하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ESG 낙제기업, 사모펀드 투자 못받는다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업계에 환경·책임·무명경영 실사가 처음 도입된다. 국내 PEF 운용사가 투자 심사 단계에서 글로벌 평가기관의 ESG 지표를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는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 ESG실사를 함으로써 투자 대상 기업의 ESG리스크를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